



2013년 7월 15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Multi Asset Strategy: 위험자산 투자, 좀 더 기다려야 할 때
이슈 분석: 위험회피계수, 출구전략과 자산배분전략

• 이머징마켓 동향

2분기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상해종합 하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세보엠이씨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만도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타이어, SK하이닉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7/05(금)	07/08(월)	07/09(화)	07/10(수)	07/11(목)	07/12(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33.31	1,816.85	1,830.35	1,824.16	1,877.60	1,869.98	
	등락폭	-5.83	-16.46	13.50	-6.19	53.44	-7.62	
	등락종목	상승(상한)	434(3)	248(3)	502(3)	277(4)	662(4)	406(6)
		하락(하한)	353(0)	563(1)	287(0)	523(1)	157(2)	382(1)
	ADR	86.93	81.20	83.92	82.48	90.97	91.64	
	이격도	10 일	100.35	99.35	99.82	99.26	101.93	101.48
		20 일	98.70	98.12	99.09	98.98	101.90	101.54
	투자심리	40	40	5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286	304	258	264	331	262	
	거래대금 (십억 원)	3,779	3,586	3,169	3,161	4,000	3,411	
코스닥	코스닥지수	525.40	515.85	519.34	515.64	527.25	532.47	
	등락폭	0.18	-9.55	3.49	-3.70	11.61	5.22	
	등락종목	상승(상한)	434(6)	248(7)	502(7)	305(4)	662(7)	596(5)
		하락(하한)	353(2)	563(0)	287(2)	588(3)	157(1)	307(0)
	ADR	85.73	76.52	80.35	79.15	89.49	95.18	
	이격도	10 일	102.20	100.21	100.14	98.99	100.93	101.67
		20 일	100.12	98.59	99.53	99.11	101.48	102.52
	투자심리	40	40	5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423	331	426	414	369	391	
	거래대금 (십억 원)	1,643	1,397	1,517	1,525	1,502	1,47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527.1	1,241.1	1,198.3	357.2	182.1	307.4	69.6	27.5	254.581	33.5
	매도	2,100.7	951.1	914.8	269.7	74.2	290.6	50.4	47.4	182.6	33.4
	순매수	-573.6	290.0	283.5	87.5	107.9	16.8	19.2	-19.9	72.0	0.1
	7월 누계	-32.4	-481.0	477.8	243.0	78.4	-55.7	-21.4	-76.5	309.9	35.7
	13년 누계	2,071.5	-10,467.4	8,918.4	2,084.8	1,076.2	-125.5	256.2	-127.7	5,754.5	-522.6
코스닥	매수	1,307.0	96.5	86.7	11.5	9.9	26.0	8.5	2.6	28.2	12.3
	매도	1,358.8	55.2	68.2	8.3	7.7	25.5	6.1	1.4	19.1	20.2
	순매수	-51.8	41.3	18.5	3.1	2.2	0.4	2.4	1.3	9.1	-7.9
	7월 누계	38.7	46.6	-70.6	-16.3	23.5	-22.4	-11.8	8.6	-52.2	-14.7
	13년 누계	-972.2	840.4	684.0	-66.0	90.6	396.2	-101.9	-46.5	421.5	-552.2

Multi Asset Strategy: 위험자산 투자, 좀 더 기다려야 할 때

7월 월간 밴드	1,780-1,93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1,930pt
12MF PER	9.1배
12MF PBR	0.97배
Yield Gap	8.1%P

- ▶ 위험자산 투자에는 당분간 보수적 태도 유지
- ▶ 원자재 가격 하락, 이머징 통화 약세 전망
- ▶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회피계수의 균형 회복 예상

민간의 금융자산이 축적되고,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절한 자산배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적립식 펀드, 중반 이후에는 이머징 마켓 주식에 국한되었던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재테크 대상은 2010년대 들어와서는 해외 채권으로 확대되었고, 이머징 경제가 불안을 보이는 최근에는 선진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 대상으로 금과 국제 원자재 시장을 고려하는 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도 일찍부터 해외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 다변화를 시작했고 또 다른 장기저축기관인 보험사들도 이제는 국내 주식과 채권 이외에 글로벌 증권시장이나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투자대상자산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같은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전망과 자산배분전략을 다루는 ‘Multi Asset Strategy’ 를 분기 단위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Multi Asset Strategy’에서는 글로벌주식, 글로벌채권, 원자재, 환율에 대한 전망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개별 자산 또는 자산배분전략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창간호인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산배분전략 수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위험회피계수, 출구전략과 자산배분전략’ 이외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그림자금융과 매크로’, ‘브라질 경제와 채권’, ‘원유 시장’ 등 4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제 시작한 만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투자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

오늘 ‘Daily’에는 7월 15일자로 발간된 ‘Multi Asset Strategy’ 자료 중 자산배분전략 부문과, 이슈 분석 중에서 ‘위험회피계수, 출구전략과 자산배분전략’ 부문을 게재하였다.

■ 자산배분전략

위험자산 투자에는 당분간 보수적 태도 유지

2분기 글로벌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5월 22일 FRB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 일본 국채시장 불안에 대한 BOJ 구로다 총재의 모호한 태도 등으로 이중 연타를 맞은 글로벌 증권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고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은 급상승했다.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급속하게 빠져 나가던 펀드 플로우가 최근에는 다소 안정을 찾고 있으나 글로벌 증권시장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성과가 좋았던 선진국 시장은 6월이 지나며 출구전략의 충격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머징 마켓은 금리, 주가, 환율 모두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3분기와 하반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출구전략 스케줄과 함께, 중국의 금융시스템 안정 여부와 하드랜딩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머징 마켓에는 부정적인 뉴스플로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험자산(이머징 주식, 이머징 채권, 하이일드본드)에는 당분간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반기, 원자재 가격 하락세, 이머징 통화 약세 예상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7.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원유 가격은 수요 및 공급의 인프라, 지정학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하락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일 때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며,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약세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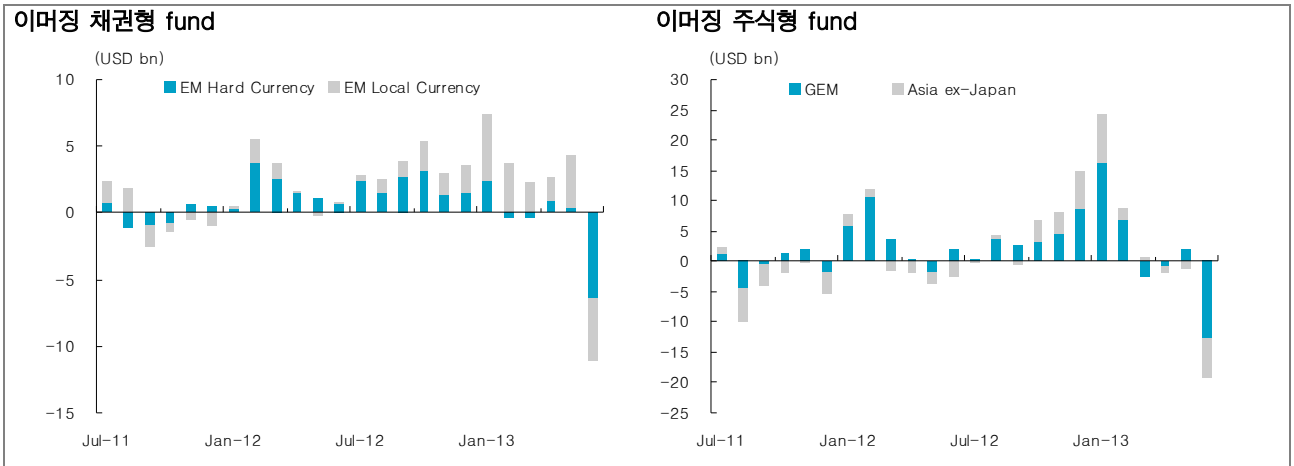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위험회피계수의 균형 회복 예상: 채권 하락, 주가 상승 시사

중장기적으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양적 완화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위험회피계수가 언제쯤, 어느 속도로 균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보다 3배 이상이나 높아진 위험회피계수가 시사하는 것은 자산가격 균형을 관점에서 채권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다. 가격 균형이 아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출구 전략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에는 균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투자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자산배분전략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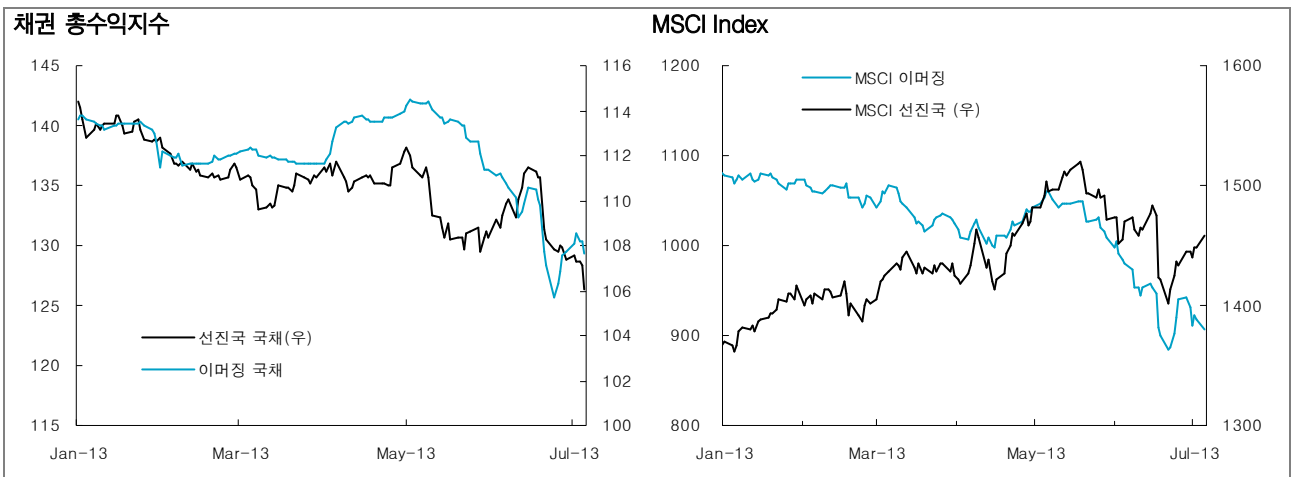
	View		Comment
	3M	1Y	
주식	Neutral	Positive	미 연준 출구전략 우려로 이머징, 선진국 증시 모두 약세, 달러 표시 금융자산 선호
선진국	Positive	Positive	미국 금융주, 자동차업종은 내수 회복 기대로 강세 지속, 일본 증시도 아베노믹스 지속에 반등
신흥국	Negative	Negative	중국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주 실적안정성 우려 부각, 이머징통화 약세로 글로벌 유동성 이탈
미국	Positive	Positive	미국, 일본 기업은 실적 추정치 상향 지속, 2분기 어닝시즌 양호할 전망
한국	Neutral	Positive	여타 이머징 증시보다 선제적으로 실적추정치, 밸류에이션 하향조정됨
채권	Negative	Negative	미국 통화정책 전환으로 금리 장기추세 상승 예상
선진국 국채	Neutral	Neutral	ECB, 영란은행 등은 미 연준 통화정책과 디커플링된 통화정책 지속 예상
이머징 국채	Negative	Negative	경기하강 및 경상적자 확대로 글로벌 자금흐름이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투자수익률 저하 우려
글로벌 IG	Neutral	Neutral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동으로 이머징채권 대비 투자수익률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글로벌 HY	Negative	Negative	신흥국 국채와 마찬가지로 과도했던 자금유입기조가 유출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크레딧 리스크 노출 위험
한국 국채	Neutral	Neutral	외화유동성 측면의 위험수준이 낮고 경제성장률 둔화 기초 고려시 금리 상승추세 지속 가능성 낮은 편
한국 회사채	Negative	Neutral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양상이 당분간 지속 가능성 있어 이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 기조도 당분간 지속 예상
원자재	Negative	Negative	중국 등 이머징 투자 수요 감소, 달러 강세 지속, commodity 가격 약세 이어질 것
에너지	Negative	Neutral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북미 원유 공급 증가 효과가 나타나 유가 하락할 전망
귀금속	Negative	Negative	미국 달러 강세 및 실질 이자율 상승으로 귀금속 투자 매력 떨어져
금속	Negative	Neutral	하반기 중국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구리 수요에 부정적 요인
Cash	Positive	Neutral	

[그림 1] Fund exod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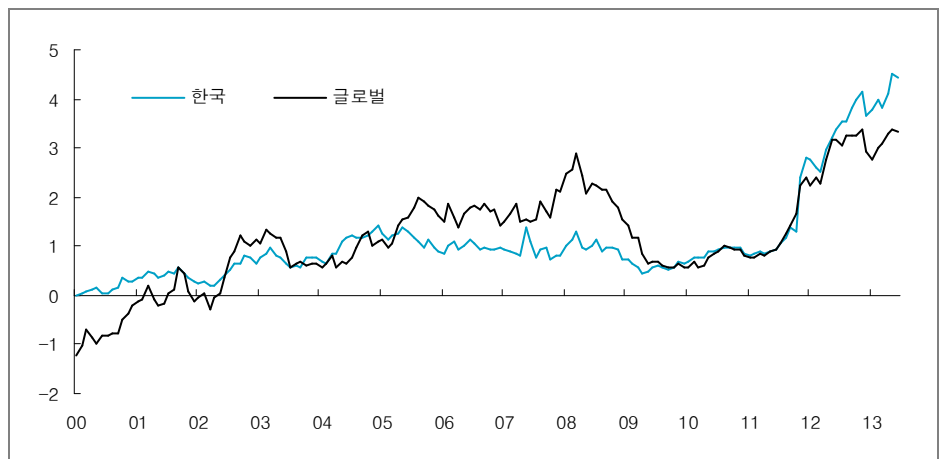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2] Coupling in fixed income vs. decoupling in equities



자료: Bloomberg, Thomson,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위험회피계수 -> 중장기적으로는 균형 회복 예상



자료: Thomson, 한국투자증권

이슈 분석: 위험회피계수, 출구전략과 자산배분전략

- ▶ 위험회피계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지표
- ▶ 양적 완화 정책 이후 위험회피계수 상승은 시장의 분할 때문
- ▶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회피계수 균형 회복 예상: 주식이 오르거나 채권이 내리거나

1. 자산배분전략의 기초: 위험회피계수

■ 위험회피계수와 최적 자산배분

위험회피계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세팅해 두거나
결정해야 하는 지표

어떤 주식이 싸지 비싼지, 투자 유망한 주식인지를 판단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표 하나를 들라고 하면, 아마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지표는 ‘PER’일 것이다. PER은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초보투자자들도 대부분 아는 지표로, 회사의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PER은 주가의 고/저 판단에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일뿐더러, PER의 역수 즉, E/P는 현재의 주가로 주식을 샀을 때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자산배분전략에서도 PER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위험회피계수’다. 위험회피계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세팅해 두거나 결정해야 하는 지표다. 그런데도 자산배분을 해야 하는 투자자, 더 나아가 자산배분전략을 업으로 하는 장기투자기관의 자산배분 담당자마저도 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산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동일해도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에 따라 최적
자산배분은 크게 달라진다

자산배분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코비츠의 평균분산모형을 검토해보자. 자산의 카테고리를 주식, 채권, 대체투자로 나눌 때,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고 가정하자. 자산배분전략의 최종 목표는 투자자의 효용 극대화이고 투자자의 효용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비례하고, 변동성(위험, 분산)에 반비례한다.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배분모형은 <표 2>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1]은 <표 1>과 <표 2>의 가정하에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계수에 따라 최적 자산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위험회피계수가 1인) 투자자의 최적 자산배분은 주식 82%, 채권 0%, 대체투자 18%이지만, 위험에 대한 태도가 중립인(위험회피계수가 3인) 투자자의 최적 자산배분은 주식 37%, 채권 38%, 대체투자 25%다. 그리고 위험을 매우 싫어하는 (위험회피계수가 5인) 투자자의 최적 자산배분은 주식 24%, 채권 57%, 대체투자 19%다. 자산의 기대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가 동일해도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에 따라 최적자산배분은 이처럼 달라진다.

<표 1> 자산 수익률에 관한 가정

<자산별 기대수익률과 위험>

자산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주식	8.0%	20.0%
채권	3.5%	3.0%
대체투자	4.5%	10.0%

<수익률 상관관계>

	주식-채권	주식-대체투자	채권-대체투자
	-0.2	0.1	-0.1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2> 효용 극대화 최적 자산배분모형과 제약 조건

<목표함수: 효용 극대화>

$$\begin{aligned} \text{Max } U &= u_p - (\lambda/2)\sigma_p^2 \\ &= w'\mu - (\lambda/2)w'\Sigma w \end{aligned}$$

<제약조건>

모든 자산비중 ≥ 0
 최저수익률(95% 신뢰구간): -20%

u_p :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λ : 위험회피계수

σ_p^2 : 포트폴리오의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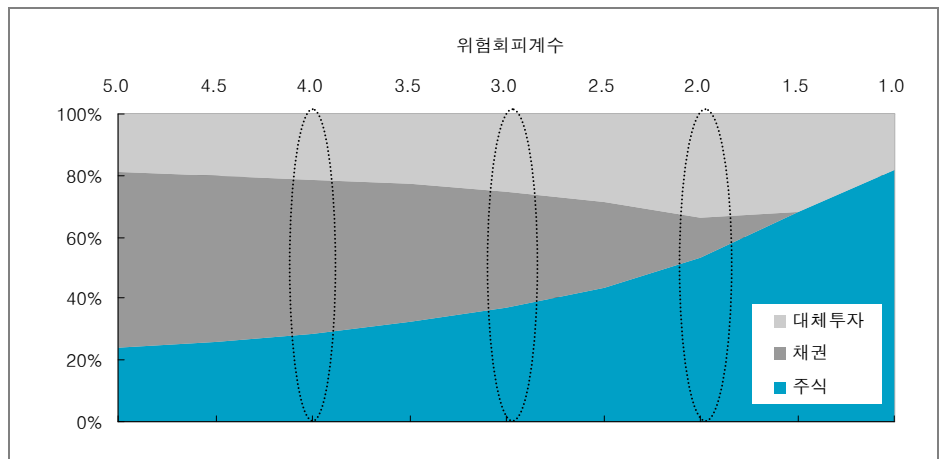
w : 자산편입비율($n \times 1$)

μ : 자산별 기대수익률($n \times 1$)

Σ : 분산공분산행렬($n \times n$)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위험회피계수와 최적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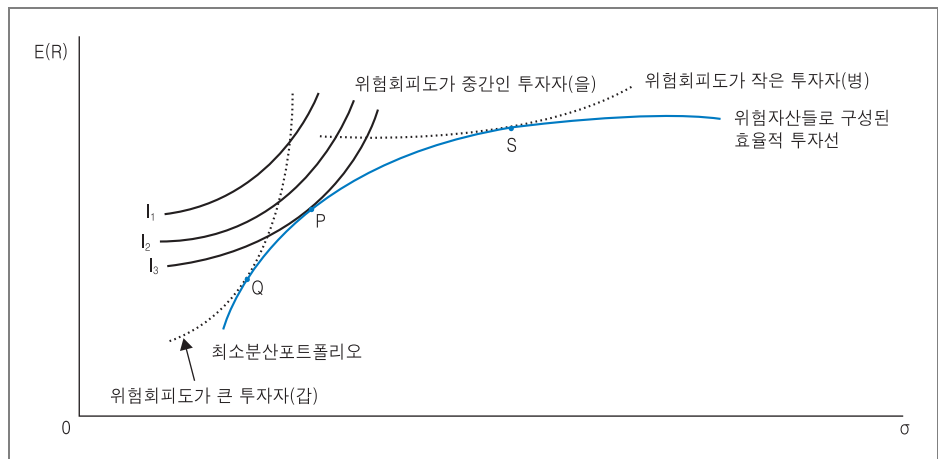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투자자들의 최적 자산배분은
위험선호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투자변경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 위험회피계수란?

X축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Y축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배치했을 때, 효율적 투자 변경(efficient frontier)은 주어진 변동성 하에서 최대 수익률 또는 주어진 수익률 하에서 최소 변동성을 갖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나타낸다. 이 점들의 집합은 모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 이 중에서 어느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인지는 투자자의 위험선호에 달려 있다.

[그림 2] 투자자의 위험선호와 최적 자산배분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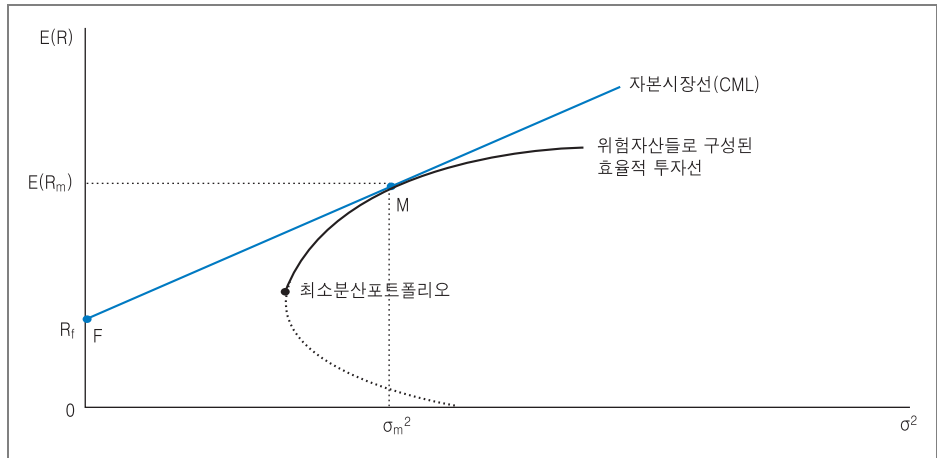
[그림 2]는 효율적 투자변경과 투자자의 위험선호 무차별 곡선, 그리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변경이 접하는 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들은 모두 각각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나타낸다.

위험선호의 정도(위험회피계수)는 투자자들마다 다르지만, 시장 전체의 위험회피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위험회피계수}(\lambda) = \text{주식시장 위험프리미엄/변동성(시장분산)} = [E(R_m) - R_f] / \sigma_m^2$$

결국 위험회피계수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자본시장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림 3] 자본시장선과 위험회피계수



자료: 한국투자증권

■ 위험회피계수와 최근 추이의 의미

시장 전체에 대한 이익추정치와 주가(시가총액)가 있을 때 PER의 역수(=E/P)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추정치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집합(유니버스)으로부터 계산해낸다. 흔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균형가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일드갭이다. 일드갭은 주식시장 기대수익률(E/P)에서 채권의 기대수익률(Rf)을 뺀 값으로 이론적으로 일드갭은 바로 주식시장 위험프리미엄(EMRP)을 의미한다.

[그림 4] 일드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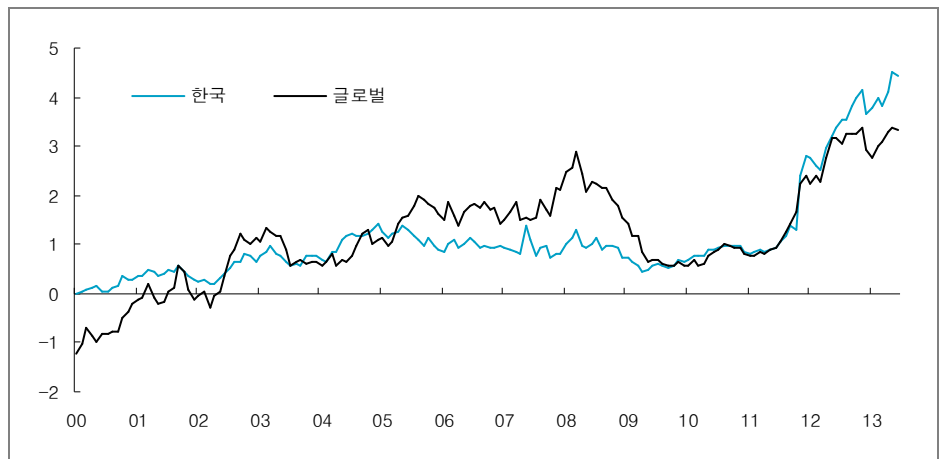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한국투자증권

위험회피계수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격차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일드갭보다 진일보한 개념

위험회피계수는 일드갭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개념이다. 단순히 수익률 격차만을 보지 않고 시장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한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프리미엄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일드갭에 비해 위험회피계수의 값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그림 5]는 MSCI Index와 PER, 그리고 국채 수익률로부터 끌어낸 글로벌 마켓과 한국시장의 위험회피계수 추이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1에서 비교적 안정을 보이던 위험회피계수가 2011년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5] 위험회피계수 추이



자료: Thomson, 한국투자증권

위험회피계수는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시기적으로 보면 위험회피계수의 변동은 주가의 변동이 아니라 미국의 양적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채권금리는 3% 아래로 급락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5%대였고 당시 주식시장의 PER은 15배였다. 2010년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은 2000년대 중반과 비슷해졌으므로 위험회피계수가 동일하다면 채권금리 2%하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PER은 25배로, 금리 3%에서는 PER이 20배 이상으로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PER은 13배에 불과하다. 짧은 기간 사이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진 걸까?

인구 고령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라는 점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험에 대한 태도는 보수적이 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설명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3배 가까이 급상승한 위험회피계수를 설명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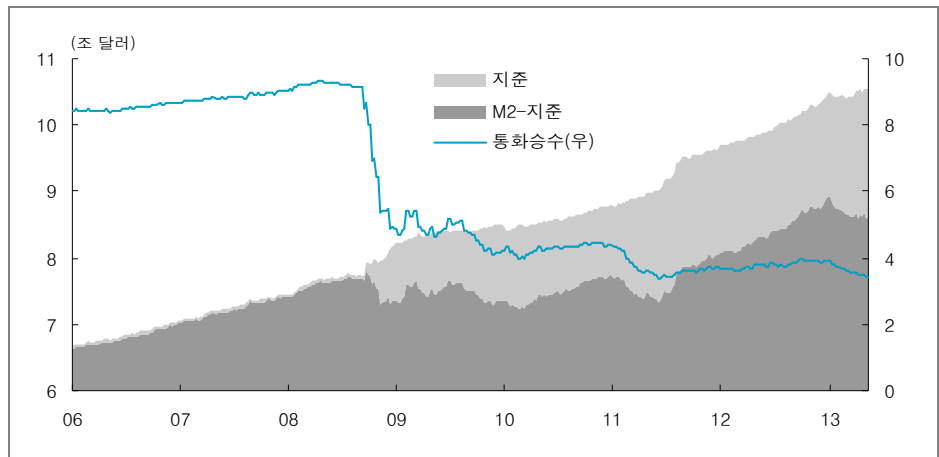
2. 출구전략과 자산배분전략

■ 양적 완화와 위험회피계수

2011년 이후 급상승한
위험회피계수는 양적 완화
이후 발생한 시장의 분할 때문

우리는 위험회피계수가 급상승한 가장 커다란 이유를 시장의 분할에서 찾고 있다.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유로운 자산선택이란 투자이론에서는 존재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현실적인 자산 선택은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양적 완화 과정에서 크게 풀린 돈은 민간 경제로는 흘러가지 않고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 안에서만 머물렀다. 은행은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주식에 투자하는 경제 주체가 아니다. 초과 지출로 보유하거나 국채 또는 다른 채권에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금리는 크게 내렸지만, 민간의 자금사정과 현금흐름에 더 민감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멀티플)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림 6] 미국 은행의 기준과 M2, 통화승수 변화



자료: FRB,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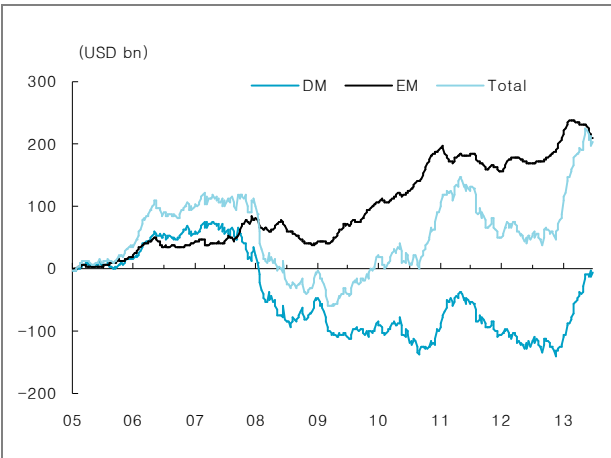
■ 저금리와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5개월 천하로 끝나

지난 몇 년간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이 과정을 해석하고 음미하는 것은 앞으로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져올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때 중요하다. 지난해 가을부터 금융시장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채권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들이 계속되는 저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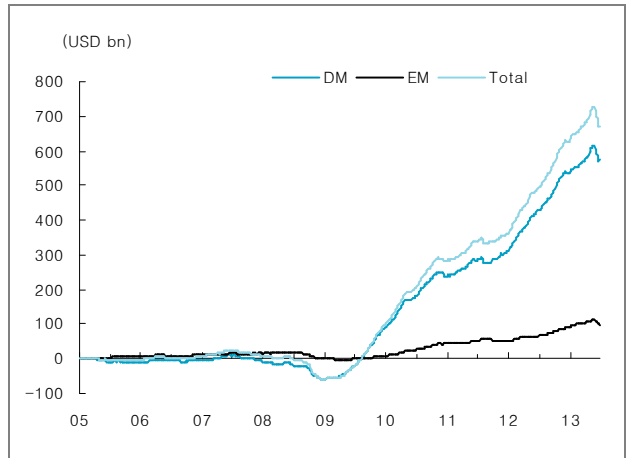
지난 해 연말부터 일어난 펀드플로우의 변화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듯 했다.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급속하게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5개월 천하로 끝났다. 5월 22일 버냉키의 입에서 출구전략이 언급되면서 글로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가릴 것 없이 패닉이 일어났고,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모든 자산(펀드)으로부터 자금의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당분간은 미국의 출구전략과 이머징 경제 침체의 암초에 걸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 7] 글로벌 펀드 플로우(주식, 누적)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글로벌 펀드 플로우(채권, 누적)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출구전략과 자산배분전략

중장기 자산배분전략: 주식이 오르거나 채권이 내리거나

그러나 출구전략이 점차 본격화되면 우리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서로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위험회피계수가 다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예상이 들어맞으려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크게 낮아지거나, 채권 금리가 오르거나, 주가가 상승해야 한다. 아니면 이 세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도 있다.

위험회피계수가 3을 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채권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격 균형이 아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시장은 중국에는 균형으로 돌아갈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분기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상해종합 하락

- ▶ 15일(월) 2분기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경제심리 부각, 상해종합 사흘 만에 약세 전환
- ▶ 관영 언론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함 없다고 언급하며 경기부양 기대감 희석
- ▶ 홍콩H, 본토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로 1.2% 반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 1.6% 하락
보험, 석탄, 증권, 은행, 비
철금속 등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가 1.6% 급락해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오후 장에 들어 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1,029억위안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의 1,310억위안보다 줄었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사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줄곧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됐다. IMF가 중국경제 성장 둔화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연간 성장률을 7%수준까지 언급해 경기하강 압력을 가중시켰다. 다음주 15일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제심리가 부각됐고 IPO재개 시점 임박 소식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보험(-3.6%), 석탄(-3.2%), 증권(-3.0%), 은행(-3.0%), 비철금속(-2.3%), 철도운송(-1.8%), 석유(-1.6%), 부동산(-1.4%), 목재가구(-1.1%), 항공(-1.0%), 음식료(-0.8%), 유통(-0.8%), 유틸리티(-0.7%), 철강(-0.4%), 제약(-0.1%) 등이 하락했다. 반면 문화(+4.3%), 헬스케어(+3.5%), 통신(+2.9%), 컴퓨터(+2.9%), 정보통신(+1.4%) 등은 강세로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 1.2% 하락
보험, 증권, 석탄, 은행, 전
력 등 업종 약세 뚜렷

홍콩H지수는 본토증시 약세에 동조하며 1.2% 하락했다. 전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소식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지만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수는 약세로 돌아섰다. 중국 재정장관의 발언으로 예상보다 큰 폭의 경기하강 가능성이 관측됐고 신화통신사의 논평으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됐다. 최근 상승폭이 컸던 중목 위주로 매도압력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보험, 증권, 석탄, 은행, 전력, 비철금속, 석유 등의 큰 폭으로 내리면서 지수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도시화 추진, 철도투자 급증 소식에 철도와 건설 관련주는 상승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12(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39.49	-1.62	1.61	3.05	-10.12
홍콩 H	9,433.66	-1.23	2.44	1.31	-17.51
인도 SENSEX	19,850.34	0.89	1.82	2.34	2.18
러시아 RTS	1,341.00	1.38	5.71	5.14	-12.18
브라질 보베스파	46,626.26	2.51	3.51	-1.75	-23.50
베트남 VN	493.99	1.97	1.72	2.67	19.40
MSCI 이머징마켓	942.88	2.98	2.76	0.27	-10.64

주: 12일 오후 5시 3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 속 코스피는 소폭 하락, 반면 코스닥은 1%가까이 강세를 보이며 혼조세

- 미국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발언에 투자심리가 고조되며 상승.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 속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장중 내내 약세흐름을 이어가며 1,869P로 마감. 반면,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을 견인, 530P선 안착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실적 개선세 대비 현저히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된 대한유화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중대형 2차전지 시장 성장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임.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STX의 핵심 계열사인 STX에너지의 지분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STX중공업에 제외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임. 한편, 중국의 신차 구매제한 정책 확대 우려감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5%, 4% 이상 급락했으며, 관련 부품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대한유화(006650) ▶20,100(상한가)	저평가 분석 및 실적 개선 기대감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주당 1000원 수준의 배당금 지급이 부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에 초강세 - 아울러,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배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0.3배) 수준에 근접한 저평가 상태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연일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전기차 가격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며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연일 강세 - 후성(093370, +8.11%), 엘앤에프(066970, +6.60%), 일진머티리얼즈(020150, +4.20%), 피앤이솔루션(131390, +3.52%), 에코프로(086520, +3.38%) 등 강세
태양광 관련주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30~60%에 불과했던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들어 80~100%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 키스톤글로벌(012170, 상한가), 톱텍(108230, +7.94%), 넥솔론(110570, +6.43%), SDN(099220, +5.59%), 유니슨(018000, +5.49%) 등 강세
자동차 관련주	중국의 신차 구매제한 정책 우려감에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8개 대도시로 신차 구매제한 조치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던 소식이 전해지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급락함에 따라 관련 부품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임 - 현대차(005830, -5.86%), 에스엘(005850, -5.40%), 화신(010690, -5.19%), 성우하이텍(015750, -4.90%), 세종공업(033530, -4.76%), 기아차(000270, -4.72%) 등 하락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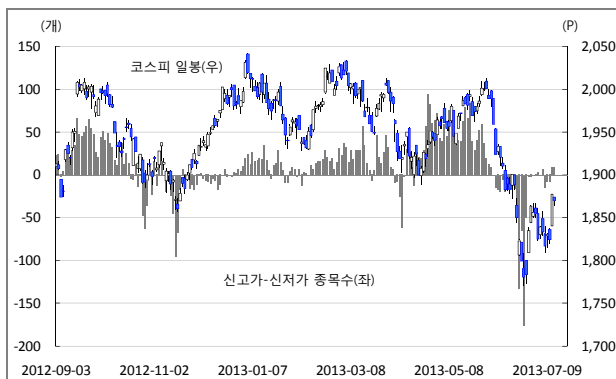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및 주 후반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며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코스피도 1,860P선을, 코스닥은 530P선을 회복하며 한주를 마감
-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에 최근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31만원선을 회복했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IT 업종이 강세를 보임
-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의 수혜 기대감에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리켄을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통신장비	하이트론	8,390	10.1	산업재	건축자재	삼화페인트	6,280	3.2
	IT	전자부품	일진머티리얼즈	14,900	17.3	경기소비재	소매	롯데하이마트	86,900	1.7
	소재	화학	코스모신소재	7,070	16.4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한국타이어	55,900	6.8
	산업재	가구	한샘	34,100	4.7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세종공업	15,000	1.0
코스닥	IT	전자제품	휴맥스	13,650	5.4	금융	부동산	해성산업	40,000	14.2
	IT	전자장비	코텍	1,5050	2.0	산업재	기계	성광벤드	28,250	4.0
	IT	전기제품	에스피지	4,900	5.4	산업재	IT서비스	포스코 ICT	9,250	4.1
	IT	반도체장비	이오테크닉스	40,650	8.6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대동	3,030	8.7
	소재	화학	리켄	10,000	13.8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우리산업	7,180	10.8
	소재	화학	에코프로	10,700	9.8	경기소비재	소매업	아이즈비전	1,510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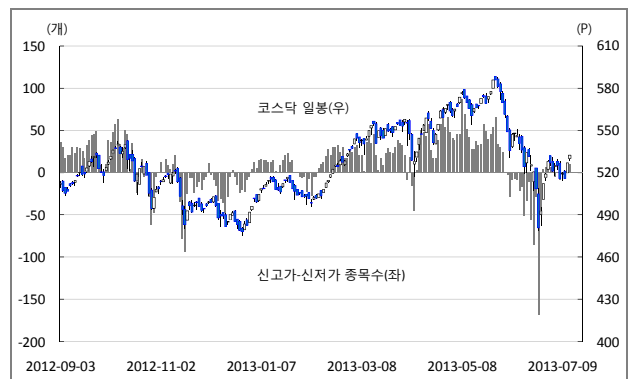
주) 상기 종목들은 7월 12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자료:Koscom

코스닥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세보엠이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세보엠이씨 (011560)	4,600 (+4.2)	4,415 (7/11)	- 배관 및 덕트(Duct;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설비 시공 국내 1위 업체로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 PSP(볼소수지코팅덕트), 유기배기덕트 등 신제품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최근 화학물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IT/화학업체들의 노후시설 교체 수요 증가 기대
비아트론 (141000)	16,750 (+0.6)	16,650 (7/02)	- 열처리 공정 관련 장비제조 업체로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SMD, LGD, BOE 등 다수의 글로벌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 - 인라인형과 배치형 열처리 장비를 모두 제조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 증가에 따른 수주 및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신세계푸드 (031440)	90,100 (-7.3)	97,200 (6/20)	- 규제 리스크 등으로 단기 업황은 부진하나 산업의 성장성, 생산설비 확충, captive market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올해 말로 예정된 음성 공장 가동으로 이마트 향 HMR(Home Meal Replacement) 및 PL상품의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성과 함께 제품믹스 개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내재
현대차 (005380)	209,000 (+2.7)	203,500 (6/13)	- 가동률 상승과 해외공장 볼륨 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증설 및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유효 - 엔저 및 글로벌 경쟁격화, 노조 문제 등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성 상존
시그네틱스 (033170)	2,840 (-14.7)	3,330 (5/22)	- 반도체 수급 개선 및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른 패키지 외주 주문량 증가 추세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 가동률 회복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고부가가치 High-end 제품 비중 확대, 시스템 LSI투자 확대, 고객 다변화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내재
한국타이어 (161390)	55,900 (+16.7)	47,900 (5/02)	- 투입원가 하락과 브랜드 입지 및 Product mix 개선 등으로 1분기 수익성 개선 - 미국 내 경쟁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국 시장 회복 본격화 예상 - 글로벌 점유율 개선과 견고한 이익 안정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비아트론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만도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만도 (060980)	106,000 (-0.9)	107,500 (7/11)	5,730	344	242	13,426	7.9
- 한라건설과 관련한 재무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주 매출처의 공격적인 증설과 점유율 상승,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매출처 다변화,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 확대, 전장제품 매출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상존							
NHN (035420)	290,000 (-0.9)	292,500 (6/13)	2,980	842	638	14,661	19.8
- '라인'의 글로벌 가입자 기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PC 온라인 게임 매출 개선,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들의 흥행 성공, 모바일 검색광고의 성장세 등을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005930)	1,312,000 (-13.7)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6.5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4,005 (-0.4)	4,020 (4/11)	789	62	63	673	6.0
- 유아 및 초등학교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204,500 (+9.9)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6.6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71,300 (-8.1)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1.5
- 2012년 휴대폰 부문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문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전자,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타이어: 2Q13 Preview – 바닥 다지기

■ 한국타이어 컨센서스 부합, 넥센타이어 하회 전망

한국타이어 2분기 매출액은 1조 8,468억원(QoQ +10%, YoY flat), 영업이익은 2,712억원(QoQ +7%, YoY +11%, OPM 14.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컨센서스 대비 각각 1.6%, 1.5% 높다. 넥센타이어는 2분기에 매출액 4,593억원(QoQ +6%, YoY +6%), 영업이익 503억원(QoQ +6%, YoY -4%, OPM 11.0%)을 거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 컨센서스 대비 각각 1.6%, 9.0% 낮은 실적이다.

■ 성수기에도 지속된 판가하락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저조하여 판가하락이 지속됐다. 실제로 중국의 타이어 내수가격은 승용차용과 트럭용 모두 2분기 내내 약세를 보였다. 여전히 높은 재고 수준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재료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률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 또한 수요부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 타이어 수요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전망

상반기 글로벌 타이어 시장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세이프가드 국면의 종료'이다.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을 가로막았던 세이프가드 조치가 2012년 9월 풀리면서, 글로벌 타이어 시장은 중국산 타이어의 공격적 재고소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하반기부터 중국의 재고소진이 일단락 되고, 불황으로 인해 미뤄진 대기수요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타이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타이어: 경쟁사 대비 낮은 판가하락으로 이익률 방어

1분기에서 넘어온 마케팅 비용이 반영되었음도 불구하고 2분기 이익률이 생각보다 견조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top tier들이 가격을 20%씩 인하하는 가운데서도 한국타이어는 인하 폭을 5%내로 가져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중국 3공장(중경, 6월 완공)과 인도네시아 공장(8월 완공)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성장을 견인한다. 8.3배인 12MF PER은 여전히 글로벌 peer 10배 대비 낮다.

■ 넥센타이어: 예상보다 미지근했던 성수기 효과

컨센서스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판매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더딘 수요 회복과 고인치 타이어 판매비중 하락이 판가를 끌어내렸다. 여기에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타이어와 직접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점도 판가에 부담이다. 돌파구가 될 만한 신규 해외OE수주는 하반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초도물량은 많지 않겠지만 2014년부터 본격 납품이 시작되어 양적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2일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

매수(유지)
목표가: 39,000원(유지)
종가(7/11): 28,400원

2Q Preview: 2014년 이후 메모리 전망은 밝음

■ 2Q 영업이익 1조원 돌파 전망

2Q DRAM 가격 상승과 NAND 가격 안정이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2Q 실적은 한국투자증권과 시장기대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램버스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램버스 소송에 대한 충당금의 환입도 2Q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2Q 매출 3.6조원(이전 전망 3.48조원), 영업이익 1조원(이전 전망 8,100억원), 순이익 8천억원(이전 전망 6,700억원)으로 전망을 상향한다. 영업이익 1조원 돌파는 2010년 3Q 이후 11분기 만이다.

■ 3Q 실적 고점 이후 계절적인 실적 감소가 주가에 미리 반영

3Q PC DRAM 가격 고점, 4Q 및 1Q14의 계절적인 실적 감소를 미리 반영하여 지난 주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였다. 3Q OP 1.05조원으로 고점 이후, 4Q 9,300억원, 1Q14 8천억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단기 주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이후 실적 개선을 확신하여 2013년 BPS 17,759원에 호황기 PBR 2.2배 수준인 목표주가 39,000원을 유지한다.

■ 2014년 이후 메모리 전망은 밝음

2014년 이후에도 메모리의 호황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의 모바일 메모리 수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과점화, 미세공정전환의 어려움, 신규 Capa 부재 등 공급 제약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2014년 영업이익 3.73조원으로 2013년 영업이익 3.3조원보다 13% YoY 증가를 전망한다.

■ 상반기 PC 수요 부진으로 연간 PC 전망을 -10% YoY로 하향

3Q에는 PC 수요 성수기로 PC DRAM 가격 안정세, 4Q에는 계절적인 수요 약세에 따른 가격 하락을 전망한다. 2013년 PC 수요 전망을 상반기 수요 부진을 반영하여 기존 -7.3% YoY에서 -10.1% YoY로 하향한다(표 7 참조).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PC 신제품을 중심으로 PC 수요가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PC DRAM 수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삼성전자의 PC DRAM 물량 확대는 부정적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일부 모바일 DRAM의 PC DRAM으로 전환은 PC DRAM 수급과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다소 부정적이다. 스마트폰의 판매 확대로 모바일 DRAM 수요가 급증하고, PC DRAM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선순환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4Q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출시로 모바일 DRAM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가 3GB를 채용하면서, 스마트폰의 모바일 DRAM 채용량 경쟁이 계속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10,396	369	45	(57)	(96)	NM	3,836	NM	4.7	1.7	(0.7)
2012A	10,162	(227)	(199)	(159)	(233)	NM	2,976	NM	7.6	1.8	(1.8)
2013F	13,765	3,301	3,100	2,532	3,646	NM	6,686	7.8	3.5	1.6	22.9
2014F	14,690	3,729	3,587	2,871	4,133	13.4	7,717	6.9	3.0	1.3	21.2
2015F	15,849	4,327	4,518	3,616	5,205	26.0	8,282	5.5	2.5	1.1	22.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7/05(금)	07/08(월)	07/09(화)	07/10(수)	07/11(목)	07/12(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33.31	1,816.85	1,830.35	1,824.16	1,877.60	1,869.98	
	등락폭	-5.83	-16.46	13.50	-6.19	53.44	-7.62	
	등락종목	상승(상한)	434(3)	248(3)	502(3)	277(4)	662(4)	406(6)
		하락(하한)	353(0)	563(1)	287(0)	523(1)	157(2)	382(1)
	ADR	86.93	81.20	83.92	82.48	90.97	91.64	
	이격도	10 일	100.35	99.35	99.82	99.26	101.93	101.48
		20 일	98.70	98.12	99.09	98.98	101.90	101.54
	투자심리	40	40	5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286	304	258	264	331	262	
	거래대금 (십억 원)	3,779	3,586	3,169	3,161	4,000	3,411	
코스닥	코스닥지수	525.40	515.85	519.34	515.64	527.25	532.47	
	등락폭	0.18	-9.55	3.49	-3.70	11.61	5.22	
	등락종목	상승(상한)	434(6)	248(7)	502(7)	305(4)	662(7)	596(5)
		하락(하한)	353(2)	563(0)	287(2)	588(3)	157(1)	307(0)
	ADR	85.73	76.52	80.35	79.15	89.49	95.18	
	이격도	10 일	102.20	100.21	100.14	98.99	100.93	101.67
		20 일	100.12	98.59	99.53	99.11	101.48	102.52
	투자심리	40	40	5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423	331	426	414	369	391	
	거래대금 (십억 원)	1,643	1,397	1,517	1,525	1,502	1,47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527.1	1,241.1	1,198.3	357.2	182.1	307.4	69.6	27.5	254.581	33.5
	매도	2,100.7	951.1	914.8	269.7	74.2	290.6	50.4	47.4	182.6	33.4
	순매수	-573.6	290.0	283.5	87.5	107.9	16.8	19.2	-19.9	72.0	0.1
	7월 누계	-32.4	-481.0	477.8	243.0	78.4	-55.7	-21.4	-76.5	309.9	35.7
	13년 누계	2,071.5	-10,467.4	8,918.4	2,084.8	1,076.2	-125.5	256.2	-127.7	5,754.5	-522.6
코스닥	매수	1,307.0	96.5	86.7	11.5	9.9	26.0	8.5	2.6	28.2	12.3
	매도	1,358.8	55.2	68.2	8.3	7.7	25.5	6.1	1.4	19.1	20.2
	순매수	-51.8	41.3	18.5	3.1	2.2	0.4	2.4	1.3	9.1	-7.9
	7월 누계	38.7	46.6	-70.6	-16.3	23.5	-22.4	-11.8	8.6	-52.2	-14.7
	13년 누계	-972.2	840.4	684.0	-66.0	90.6	396.2	-101.9	-46.5	421.5	-552.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7,819	전기,전자	-39,891
철강및금속	7,059	운수장비	-31,840
통신업	6,699	서비스업	-15,467
하나금융지주	7,712	삼성전자	-31,301
POSCO	4,755	KODEX 레버리지	-13,923
삼성SDI	4,451	현대차	-10,565
우리금융	4,277	삼성생명	-9,614
KB금융	4,187	NHN	-8,394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2,050	운수장비	-45,679
서비스업	19,998	철강및금속	-9,642
금융업	9,895	의약품	-2,352
삼성전자	10,871	현대차	-37,128
SK이노베이션	8,963	기아차	-27,796
현대중공업	8,371	현대제철	-3,767
SK하이닉스	8,158	삼성전기	-3,540
LG화학	8,077	풍산	-2,97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738	철강및금속	-7,443
보험	222	전기,전자	-1,979
음식료품	170	서비스업	-1,873
현대차	3,664	POSCO	-7,039
KT	968	현대위아	-3,455
S-Oil	597	OCI	-1,604
KODEX 200	574	삼성전자	-1,385
삼성SDI	562	삼성물산	-1,36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4,769	전기,전자	-13,708
유통업	1,249	운수장비	-8,837
서비스업	1,119	통신업	-2,530
삼성생명	6,247	TIGER 200	-10,382
현대차	3,710	현대모비스	-8,066
KStar 200	2,600	삼성전자	-7,303
고려아연	1,963	기아차	-5,275
LS	1,677	ARIRANG 200	-4,93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25,786	운수장비	-73,911
통신업	9,768	전기,전자	-48,093
서비스업	6,931	철강및금속	-13,604
KODEX 인버스	20,279	기아차	-40,870
하나금융지주	15,204	삼성전자	-40,543
SK이노베이션	13,229	현대차	-27,871
우리금융	11,861	NHN	-15,920
삼성SDI	8,483	KODEX 레버리지	-15,333
대우조선해양	6,855	SK하이닉스	-9,042
SK텔레콤	5,629	KODEX 200	-7,508
KB금융	4,881	삼성전기	-6,960
LG화학	4,276	현대모비스	-6,940
KT	2,755	SK	-5,725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6,676	운수장비	-30,252
서비스업	26,643	금융업	-5,977
철강및금속	22,536	유통업	-4,396
삼성전자	65,855	현대차	-32,541
NHN	13,669	하나금융지주	-13,958
LG화학	12,854	기아차	-13,751
한국전력	9,327	삼성전기	-9,046
신한지주	8,978	LG전자	-6,264
현대제철	8,871	호텔신라	-5,760
현대모비스	8,051	LG이노텍	-4,670
삼성테크윈	7,872	삼성화재	-4,494
대림산업	7,411	KT	-4,440
POSCO	7,233	우리금융	-3,99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장비	1,102	금융서비스	-1,124
오락,문화	882	금속	-902
운송장비,부품	873	IT부품	-834
GS홈쇼핑	1,148	동부티에스블랙펄스팩	-902
휴맥스	777	성광밴드	-813
매일유업	744	CJ오쇼핑	-798
미디어플렉스	713	KG이니시스	-582
CJ E&M	555	서원인택	-442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장비	444	정보기기	-391
운송장비,부품	227	제약	-376
오락,문화	215	반도체	-141
휴맥스	441	씨젠	-405
씨티씨바이오	259	현대아이비티	-391
우리산업	233	서울반도체	-144
미디어플렉스	203	메디투스	-115
코오롱생명과학	163	CJ E&M	-114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7,163	IT부품	-8,283
금속	5,793	제약	-3,520
방송서비스	2,510	운송장비,부품	-902
서울반도체	8,184	파트론	-3,527
성광밴드	4,581	셀트리온	-2,979
게임빌	2,377	위메이드	-1,835
CJ오쇼핑	1,514	KH바텍	-1,530
삼천리자전거	1,500	인터플렉스	-1,032
에스엠	1,200	평화정공	-879
솔브레인	1,007	파워로직스	-788
GS홈쇼핑	970	메디포스트	-637
파라다이스	954	CJ E&M	-572
차바이오앤	850	플렉스컴	-55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6,210	반도체	-4,549
제약	4,451	IT부품	-3,468
오락,문화	3,877	인터넷	-857
CJ E&M	6,104	서울반도체	-1,974
씨티씨바이오	2,619	네패스	-1,689
씨젠	2,295	KG이니시스	-1,211
미디어플렉스	2,081	크루셀텍	-921
파라다이스	1,806	다음	-888
원스테크넷	1,451	CJ오쇼핑	-877
뷰웍스	1,375	골프존	-858
휴맥스	1,313	서원인택	-717
메디투스	1,152	솔브레인	-655
우리산업	1,093	플랜티넷	-652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7,163	IT부품	-8,283
금속	5,793	제약	-3,520
방송서비스	2,510	운송장비,부품	-902
서울반도체	8,184	파트론	-3,527
성광밴드	4,581	셀트리온	-2,979
게임빌	2,377	위메이드	-1,835
CJ오쇼핑	1,514	KH바텍	-1,530
삼천리자전거	1,500	인터플렉스	-1,032
에스엠	1,200	평화정공	-879
솔브레인	1,007	파워로직스	-788
GS홈쇼핑	970	메디포스트	-637
파라다이스	954	CJ E&M	-572
차바이오앤	850	플렉스컴	-556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태광산업	26 일	대덕전자	17 일
유니드	22 일	현대글로벌비스	12 일
아세아시멘트	18 일	에스원	11 일
울촌화학	18 일	삼성증권	11 일
신도리코	17 일	LG하우시스	10 일
롯데칠성	16 일	엔씨소프트	9 일
LG화학	16 일	유한양행	7 일
삼성테크윈	12 일	영풍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31 일	동양시멘트	12 일
메가스터디	27 일	OCI머티리얼즈	8 일
SBS콘텐츠헤브	14 일	하이록코리아	7 일
에스엠	12 일	모두투어	7 일
멜파스	11 일	동서	5 일
모두투어	10 일	KTH	5 일
포스코 ICT	8 일	JW중외신약	5 일
서부T&D	7 일	서부T&D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22,681	기아차	49,127
KODEX 레버리지	71,679	삼성중공업	43,618
하나금융지주	56,429	현대차	34,102
LG디스플레이	54,832	대우조선해양	32,531
SK이노베이션	54,803	엔씨소프트	31,429
KODEX 200	53,305	NHN	25,613
POSCO	52,450	현대차2우B	20,434
LG화학	44,719	OCI	15,528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22,150	성광밴드	7,105
SK브로드밴드	11,244	서울반도체	6,969
엑토스소프트	6,988	다음	6,943
에스엠	5,924	솔브레인	4,509
서울반도체	4,418	이오테크닉스	4,268
포스코 ICT	4,315	GS홈쇼핑	4,110
원스텍크넷	3,762	삼천리자전거	2,238
휴맥스	3,335	아모텍	1,97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서비스업		6,931	26,643
KODEX 인버스		20,279	1,508
LG화학		4,276	12,854
삼성SDI		8,483	3,905
대우조선해양		6,855	3,394
삼성테크윈		2,141	7,872
엔씨소프트		1,872	7,000
KB금융		4,881	2,515
삼성엔지니어링		2,648	4,382
SK텔레콤		5,629	1,181
현대중공업		1,306	3,918

KOSDAQ			
종	목	기	관
금속		373	5,793
오락,문화		3,877	1,845
도매		3,164	2,488
성광밴드		257	4,581
파라다이스		1,806	954
미디어플렉스		2,081	583
삼천리자전거		288	1,500
에스엠		344	1,200
휴맥스		1,313	92
우리산업		1,093	109
포스코 ICT		625	563
GS홈쇼핑		164	970
차바이오텐		15	8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증권	24 일	롯데칠성	23 일
한일시멘트	22 일	두산	14 일
부광약품	19 일	신도리코	10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7 일	하나금융지주	10 일
TREX 200	16 일	강원랜드	6 일
녹십자	15 일	롯데삼강	5 일
대덕전자	14 일	아모레G	5 일
삼성증권	14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네패스	10 일	이트레이드증권	43 일
테크노세미켐	4 일	한국토지신탁	11 일
에이블씨엔씨	4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KCC건설	2 일	에스엔유	4 일
아트라스BX	2 일	네패스	3 일
시그네틱스	2 일	게임하이	3 일
CJ오쇼핑	2 일	다날	3 일
STS반도체	2 일	우주일렉트로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모비스	-57,408	삼성전자	-73,096
현대차	-41,260	KODEX 200	-65,552
기아차	-36,346	하나금융지주	-54,796
NHN	-25,041	POSCO	-27,288
삼성전기	-24,342	LG디스플레이	-25,351
SK하이닉스	-23,642	SK이노베이션	-20,315
현대위아	-22,360	삼성물산	-19,856
삼성엔지니어링	-21,458	LG전자	-17,635

KOSDAQ			
기	관	외	국 인
루멘스	-12,028	셀트리온	-4,908
네패스	-8,698	파워로직스	-1,991
다음	-5,229	포스코 ICT	-1,847
옵니시스템	-3,935	에스엠	-1,494
GS홈쇼핑	-3,891	세중	-1,486
이오테크닉스	-3,412	플렉스컴	-1,316
솔브레인	-3,023	휴비츠	-1,234
크루셜텍	-2,903	삼천당제약	-78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73,911	-30,252 -104,163
보험		-3,664	-670 -4,334
종이, 목재		-453	-640 -1,093
현대차		-27,871	-32,541 -60,412
기아차		-40,870	-13,751 -54,620
삼성전기		-6,960	-9,046 -16,005
SK하이닉스		-9,042	-3,355 -12,397
현대위아		-2,423	-1,526 -3,949
넥센타이어		-471	-3,175 -3,646
풍산		-3,474	-63 -3,537
하이트진로		-2,770	-167 -2,937
한솔테크닉스		-1,901	-653 -2,554
현대미포조선		-1,502	-968 -2,47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3,468	-8,283 -11,751
금융서비스		-789	-153 -941
육상운송		-31	-242 -274
파트론		-594	-3,527 -4,121
네패스		-1,689	-346 -2,035
인터플렉스		-353	-1,032 -1,385
서원인텍		-717	-316 -1,033
크루셜텍		-921	-109 -1,029
실리콘웍스		-570	-443 -1,013
골프존		-858	-93 -951
플랜티넷		-652	-266 -918
메디포스트		-2	-637 -639
원익IPS		-85	-549 -63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757	21,334	
삼성전자	16	20,739	
KODEX 200	664	16,055	
삼성전기	162	13,296	
LG전자	126	8,898	
KT&G	53	4,148	
한라비스테온공조	116	3,889	
LG유플러스	284	3,542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파트론	175	3,063	
골프존	1	1,968	
컴투스	29	965	
CJ E&M	0	817	
바이로메드	21	693	
위메이드	3	423	
윈스테크넷	4	368	
셀트리온제약	24	35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087	5,362,379	
POSCO	8,179	2,535,441	
LG전자	20,186	1,441,278	
현대차	6,137	1,362,376	
SK하이닉스	40,687	1,155,504	
OCI	6,063	848,805	
기아차	11,840	728,155	
NHN	2,477	718,248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0,680	489,671	
파라다이스	6,563	153,250	
파트론	6,149	110,381	
에스엠	2,511	87,012	
서울반도체	2,495	86,065	
게임빌	848	62,435	
하나투어	828	60,872	
오스템임플란트	2,124	60,8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화학	8,500	운수창고	-3,808
통신업	3,085	건설업	-1,011
서비스업	1,700	기계	-498
한화케미칼	7,904	STX팬오션	-3,378
LG유플러스	3,418	두산인프라코어	-1,698
삼익악기	1,961	한진해운	-1,374
삼성엔지니어링	1,450	KODEX 200	-1,039
하나금융지주	1,097	안국약품	-951
한국가스공사	999	락앤락	-469
CJ CGV	687	한국전력	-453
금호타이어	672	SK하이닉스	-435
아시아나항공	549	KT&G	-413
오리엔트바이오	532	OCI	-409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IT부품	2,847	제약	-1,842
반도체	1,312	정보기기	-138
통신서비스	894	금속광업	-124
SK브로드밴드	894	셀트리온	-1,021
KH바텍	495	안국약품	-951
차이나킹	333	매일유업	-302
파트론	326	이녹스	-282
차바이오앤	317	원익IPS	-276
파워로직스	277	에스맥	-253
성호전자	251	SM C&C	-223
미디어플렉스	243	삼진엘앤디	-177
루멘스	229	알에프텍	-175
AP시스템	206	한글과컴퓨터	-17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7/08(월)	07/09(화)	07/10(수)	07/11(목)	07/12(금)
외국인	-10,482.4	-496.0	676.0	-191.4	-88.5	-38.0	275.0	-44.4
기관계	8,937.5	496.9	-244.3	154.5	140.1	3.8	302.6	-65.7
(투신)	-121.1	-51.2	-442.3	37.7	7.6	-35.6	21.3	-20.2
(연기금)	4,664.9	264.5	-43.5	28.9	42.4	36.7	47.4	57.2
(은행)	-127.8	-76.6	-1.4	-17.6	-9.5	-14.0	-20.0	1.6
(보험)	1,073.2	75.4	28.0	28.7	51.4	8.1	104.9	-59.0
개인	2,071.2	-32.8	-377.4	31.7	-55.3	39.7	-573.9	71.3
기타	-526.4	31.9	-54.3	5.1	3.7	-5.5	-3.7	38.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7/05(금)	07/08(월)	07/09(화)	07/10(수)	07/11(목)
KOSPI	2,033.3	1,825.7	1,997.1	1,833.3	1,816.9	1,830.4	1,824.2	1,855.0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8,446.8	18,167.4	17,095.5	17,229.7	18,436.2
(증감액)	1,996.5	3,611.7	334.1	429.3	-279.4	-1,071.9	134.2	-1,455.8
(회전율)	50.3	34.2	26.7	29.4	27.4	27.4	28.0	30.8
실질예탁금 증감	-3,502.6	3,775.5	-13,274.3	656.4	-259.8	-832.3	196.9	-1,737.3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485.2	4,487.0	4,532.6	4,509.2	4,427.3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56.1	131.3	133.6	150.3	81.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7/05(금)	07/08(월)	07/09(화)	07/10(수)	07/11(목)
전체 주식형	92,538	-630	578	30	70	58	51	67
(ex. ETF)		-2,397	274	-6	30	46	7	46
국내 주식형	69,296	1,348	613	38	76	66	51	74
(ex. ETF)		-431	307	2	36	51	7	52
해외 주식형	23,242	-1,977	-36	-8	-6	-8	0	-7
(ex. ETF)		-1,965	-33	-8	-6	-5	0	-7
주식 혼합형	9,564	-360	-1	0	0	7	4	-2
채권 혼합형	23,681	4,953	-70	-4	2	-9	-1	-104
채권형	54,003	1,585	-61	45	153	-100	-19	-116
MMF	82,779	18,779	13,956	1,387	2,590	310	-650	13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7/08(월)	07/09(화)	07/10(수)	07/11(목)	07/12(금)
한 국	-9,186	-292	894	-167	-77	-33	258	125
대 만	238	674	789	-206	167	200	639	379
인 도	13,515	174	-390	-39	28	12	-	-
인도네시아	-456	-403	-391	-97	-53	-59	7	-
태국	-2,589	-62	-189	-124	-28	58	78	-
남아공	2,720	271	-173	-106	-13	-56	54	-
필리핀	1,479	-17	-52	-14	-6	-9	-2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7/05(금)	07/08(월)	07/09(화)	07/10(수)	07/11(목)	07/12(금)
회사채 (AA-)	3.29	3.41	3.46	3.45	3.40	3.30	3.33
회사채 (BBB-)	8.80	9.04	9.10	9.09	9.04	8.94	8.97
국고채 (3년)	2.82	2.95	3.00	2.99	2.94	2.84	2.86
국고채 (5년)	2.97	3.22	3.31	3.29	3.24	3.10	3.11
국고채 (10년)	3.16	3.50	3.61	3.60	3.53	3.37	3.38
미 국채 (10년)	1.76	2.69	2.64	2.64	2.59	2.53	-
일 국채 (10년)	0.80	0.88	0.86	0.87	0.82	0.81	-
원/달러	1,070.60	1,142.30	1,152.45	1,141.70	1,135.80	1,122.55	1,120.60
원/엔	1,243.73	1,141.50	1,138.00	1,129.06	1,129.82	1,141.00	1,132.00
엔/달러	86.08	100.07	101.28	101.12	100.53	98.64	99.06
달러/유로	1.32	1.29	1.28	1.28	1.28	1.31	1.30
DDR3 1Gb (1333MHz)	0.67	1.27	1.27	1.28	1.27	1.27	-
DDR3 2Gb (1333MHz)	1.07	1.87	1.84	1.84	1.80	1.78	-
NAND Flash 16Gb (MLC)	1.89	2.97	2.97	2.98	2.97	2.97	-
CRB 지수	295.01	280.72	282.64	283.60	286.17	286.68	-
LME 지수	3,454.5	2,931.3	2,966.0	2,931.7	2,976.4	3,031.6	-
BDI	699	1,099	1,115	1,120	1,130	1,139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103.54	103.28	103.53	106.78	104.92	-
금 (달러/온스)	1,663.40	1,212.70	1,234.90	1,245.90	1,247.40	1,279.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9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7월 8일	235.12	235.95	1.14	0.83	0.95	241,947	118,099	1,132
7월 9일	236.94	238.45	1.14	1.51	1.00	213,099	118,157	58
7월 10일	236.23	236.40	1.11	0.17	0.41	208,917	116,264	-1,893
7월 11일	243.88	244.20	1.13	0.32	1.19	230,111	117,177	913
7월 12일	242.72	243.45	1.13	0.73	0.72	127,516	112,486	-4,691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7월 8일	1,947	-585	-1,575	-1,885	44	219	-76	130
7월 9일	136	1,276	-1,524	-1,275	-89	17	-51	-132
7월 10일	-5,417	1,898	3,402	2,646	586	-117	-40	326
7월 11일	7,937	-2,635	-6,374	-5,426	102	-413	-44	-599
7월 12일	-2,610	1,416	1,475	2,231	-1,063	-71	402	-26
누적포지션	-8,279	5,626	1,931	-2,484	6,278	-223	-1,004	-644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7월 8일	569	699	131	555	652	97	14	47	33	5,014	8,557
7월 9일	511	593	81	494	536	42	17	57	39	5,000	8,583
7월 10일	653	504	-149	590	492	-98	63	12	-51	4,999	8,531
7월 11일	446	959	513	429	851	422	17	108	90	4,949	8,522
7월 12일	663	672	9	616	658	42	48	1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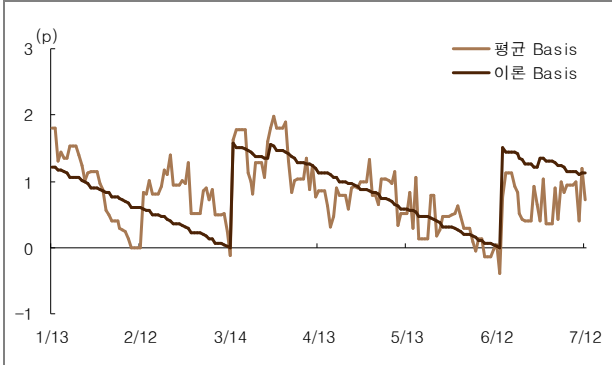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4.97	4,891	66,184	0.37	257.50	15.25	3	0	19.66
15.03	5,390	93,619	0.62	255.00	12.75	186	118	17.35
15.19	3,459	92,942	1.01	252.50	10.65	297	73	17.10
15.40	2,012	88,331	1.58	250.00	8.70	403	130	16.91
15.57	1,610	68,150	2.34	247.50	6.95	1,215	223	16.85
15.84	7	13,933	3.35	245.00	5.40	3,720	365	16.80
15.94	356	7,486	4.55	242.50	4.10	8,551	836	16.88
16.30	257	3,547	6.05	240.00	3.15	12,173	1,761	17.46
16.40	-51	1,026	7.70	237.50	2.29	81,478	3,424	17.60
16.74	-131	646	9.60	235.00	1.68	86,428	1,350	18.06
16.75	-134	395	11.60	232.50	1.22	53,783	2,417	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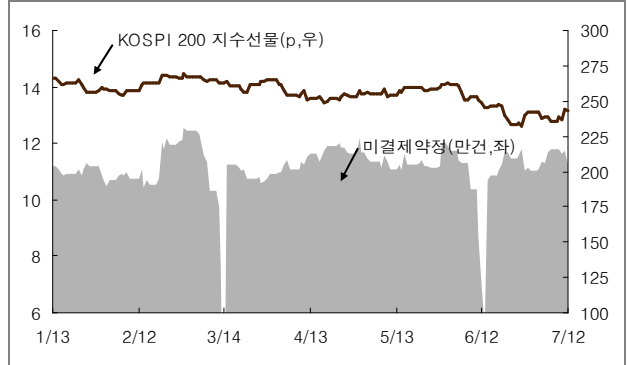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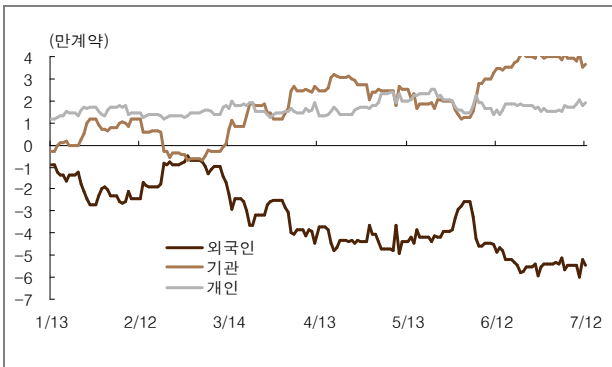
- 평균 Basis: 0.72 (전 거래일 대비 0.47 하락)
- 이론 Basis: 1.13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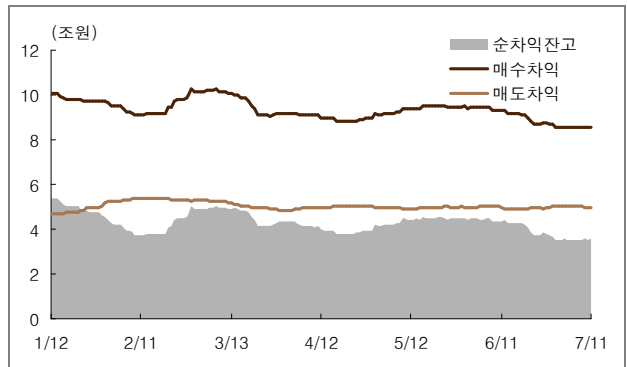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4,691 계약 감소한 112,486 계약
- 선물가격(243.45): 전 거래일 대비 0.7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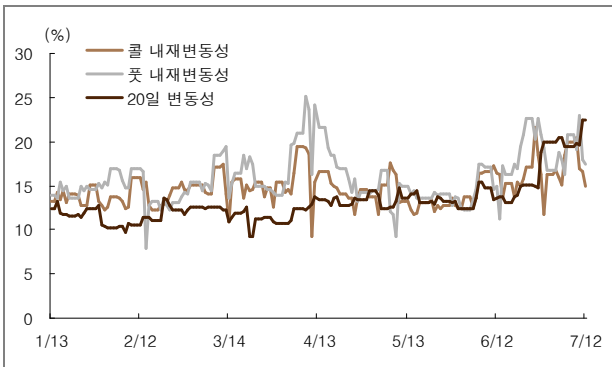
- 외국인: 2,610 계약 순매도
- 기관: 1,475 계약 순매수 / 개인: 1,416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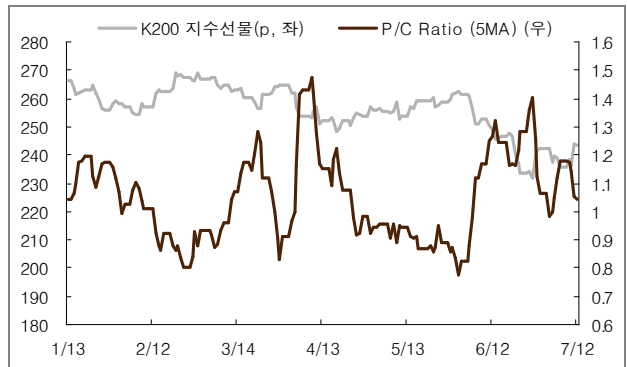
- 차익거래: 332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422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0% / 풋 17.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2.44%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4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8	9	10	11	12
유럽> 7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12.6, -11.4, -11.6) 日> 5월 경상수지 YoY (58.1%, 91.6%, 100.8%) 5월 무역수지 - BOP (억엔) (-9,067, -9,051, -8,288)	美>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3.5, 94.9, 94.4)	韓> 6월 실업률 SA (3.2%, 3.2%, 3.2%) 6월 은행가계대출 (KRW, 조) (469.9, n/a, 465.1)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4.0%, n/a, -11.7%) 5월 도매판매 MoM (1.6%, 0.3%, 0.7%) FOMC 의사록 공개 中> 6월 수출 YoY (-3.1%, 3.7%, 1.0%) 6월 수입 YoY (-0.7%, 6.0%, -0.3%) 日> 6월 소비자 기대지수 (44.3, 45.6, 45.7)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2.50%, 2.50%, 2.5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3.5만, 34.3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293.3만)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발표 (0.10%, 0.10%, 0.10%)	美> 6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n/a, 0.5%, 0.5%) 유럽> 5월 유로권 CPI MoM (n/a, n/a, 0.1%) 5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n/a, -0.2%, 0.4%) 日> 6월 산업생산 MoM (n/a, n/a, 2.0%)
15	16	17	18	19
美> 5월 기업재고 (n/a, 0.2%, 0.3%) 中> 2분기 실질 GDP (n/a, 7.7%, 7.7%) 6월 실제 FDI YoY (n/a, 0.7%, 0.3%) 실적발표> 美 시티그룹	韓> 6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n/a) 美> 6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0.3%, 0.1%)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51, 52) 유럽> 6월 유로권 CPI MoM (n/a, 0.1%, 0.1%) 실적발표> 韓 삼성엔지니어링 美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4.0%) 6월 건축허가 MoM (n/a, -1.5%, -2.0%) 7월 주택건설 착공 MoM (n/a, 3.9%, 6.8%) 연준 베이지북 발간 실적발표> 韓 KT&G 美 BOA, 인텔, 이베이 샌디스크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36.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297.7만) 6월 경기선행지수 (n/a, 0.3%, 0.1%) 7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n/a, n/a) 실적발표> 韓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美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구글	日> 5월 동행지수 CI (n/a, n/a, 105.9) 5월 선행지수 CI (n/a, n/a, 110.5) 실적발표> 美 월풀, GE
22	23	24	25	26
美> 6월 기준주택매매 MoM	美> 6월 신규주택매매 MoM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유럽> 6월 유로존 제조업 PMI 6월 유로존 서비스 PMI 6월 독일 제조업 PMI 6월 독일 서비스 PMI 中> 6월HSBC pulse제조업PMI 日> 6월 조정상품거래수지 6월 무역수지-수출총액 YoY 6월 무역수지-수입총액 YoY	韓> 2분기 GDP QoQ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6월 내구재 주문 유럽> 6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韓> 6월 소비자대지수 美> 7월 미시간대 소비자대지수 日> 6월 국내 CPI YoY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